

‘광주형일자리’ 후공장 투자자 위한 설립인가?

주요 투자자들 배당 증액·인센티브 확약 안전장치 요구 시 500억 투자...투자 인센티브 500억 지원 뒤늦게 논란 이사회 3인에 노동이사 포함 안되는 등 사업 취지 퇴색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잡음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5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합작법인에 투자하는데 이어, 추가로 300억원 이상의 보조금(투자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자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대규모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공장을 이끌어갈 합작법인 이사회(이사 3인)에 노동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들어 ‘노사상생형 일자리’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엔 주주들이 이익만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합작법인 설립 관련 투자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광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등에 따라 합작법인을

신규 유치 기업으로 보고, 실제 투자 규모의 10%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가 투자 설명회에서 공개한 토지비 1391억원(빛그린산단 18만3000평, 평당 76만원), 차체·도장·의장공장·부대건축물 등 건물 건립비 2008억원, 생산설비 구축비 1652억원 등 실제 투자비 총액 5051억원을 토대로 계산하면 보조금 성격의 인센티브는 50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올 1월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당시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300억원 이상의 투자 인센티브를 기업에 지급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동의안 송부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산견위원은 “올 1월 공개한 투자협약서 주요 내용에 실 투자비 10% 지원 예정이라고 단 한 줄 나와있다. 광주시가 보조금 지원 등 주

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작법인은 공장등록 후 2년 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는 집행 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향후 집행부와 의회간 협조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계획 관련 의회 보고와 관련해 좀더 들여다보면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광주시가 의원실을 돌며 보조금 지급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종이에 서명 받았다는 점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자 광주시가 의회 보고를 사실상의 의회 동의 절차로 간주하고 산업은행 등 주요 투자자 투자 촉진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앞서 산업은행 측의 ‘1·2대 주주 배당금 축소’ 요구와 더불어 투자 인센티브 지원 확약 성격의 시의회 보고를 두고, 산업은행 등 주요 투자자들이 사업 성공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아 투자금 입금에 앞서 거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도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 자본금 총액의 90% 이상이 입금되면 투자

금을 입금하기로 돼 있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이번 사업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특혜성 투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성격 규정과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 투자액 규모가 광주와는 다르지만, 구미형일지리의 경우 6만평을 30년간 무상 임대하고,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별도 지원한다”며 “광역단체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합작법인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메울 사회적 복지의 구체적 내용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점 등을 두고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장연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정의당·비례)은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산물이지만, 회사 설립 전부터 사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노사상생 경영이 이뤄지도록 노동이사가 포함돼야 한다. 일반 기업처럼 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경영 활동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관광자원 홍보 ‘전남여행 UCC 2차 공모전’

‘섬과 바다...’ 9월 29일까지 1차 공모전 6점 선정

전남도가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를 위해 ‘전남여행 UCC 2차 공모전’을 ‘섬과 바다로 만나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9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1차 공모전에서는 작품성이 뛰어난 6점을 선정할 바 있다.

1차 공모전은 ‘짜뭇짜뭇 전남 여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금상은 드론촬영기법을 활용해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준 김한수 씨의 ‘신비로운 만남’, 추억이 가득한 전남여행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천용일 씨의 ‘남도의 꽃길 따라’, 이정국 씨의 ‘짜뭇짜뭇하게 오쇼잉’, 윤치영 씨의 ‘진도가 안내한 배로온 여행’, 김선우 씨의 ‘생명의 땅 전남, 짜뭇짜뭇 걷다’, 김한솔 씨의 ‘가족여행기’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열린 ‘전남여행 UCC 공모전’은 브이로그(VLOG) 트렌드에 맞춰 영상을 통해 전남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다.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전남도는 관광객들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활용을 위한 1차 공모전에서는 작품성이 뛰어난 6점을 선정할 바 있다.

공모전 선정 작품은 관광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남도여행 길잡이’ 누리집(www.namdokorea.com)과 전남도관광문화재단 누리집(www.jact.or.kr) 남도사계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영상 활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에 맞춘 공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산단용 지하수 30곳서 발암물질

자연마을에선 라돈 초과 검출 지하수 2353곳 중 157곳 부적합

광주 시내 주요 지역 산단용 지하수 일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가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공개한 지하수 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지하수의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6.67%로 전국 평균 2.99%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하수는 용도에 따라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등으로 나뉜다. 2007년 관리계획 수립 시보다 특정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 다양한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전체 분석한 지하수(지점수) 2353곳 가운데 부적합한 곳은 157곳(6.67%)였다.

부적합 항목도 일반오염물질과 사람과 동식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특정 유해물질 등 모두 205건에 달했다.

질산성 질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소, 탁도, 총대장균군, 망간, 일반 세균, 염소이온, 불소 등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TCE, PCE, 사염화탄소 등이 공장지역 중심으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단 지역 중 광산구 산업단지 지하수 24곳에서 TCE 항목이 검출됐으며 4곳은 기준을 초과했다.

PCE 항목은 9곳에서 검출되고 2곳이 기준을 넘었다.

북구 관내 산단에서는 6곳에서 TCE 항목이 검출되고 이 가운데 2곳은 초과했으며, PCE는 2곳에서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하였다.

TCE는 금속공업 부품 세정제, 접착제 첨가제, 페인트 제거제, 세정용제, 농약 등에 사용되며, PCE는 드라이클리닝이나 금속부품 세정제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물질은 흡착이 적고 불연성 해물질과 중금속 등 다양한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가 자연마을 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광산구 지정·동류동 원수에서 라돈성분이 미국 기준치(4000pCi/L)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 라돈 기준치는 없다.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하수 관리계획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진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염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하수 이용과 사전관리, 수질관리 계획 등을 세워 지하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소방관 우울증 위험군 감소 지난해 4.3%→올 3.6%로 소방본부, 2885명 조사

전남 소방공무원들의 우울증·수면장애·음주습관 장애 위험군이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소방공무원 2885명을 상대로 2019년 마음 건강 상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난해 4.3%였던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올해 3.6%로 줄었다. 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음주습관 장애도 지난해 25.9%에서 22.2%로 3.7%포인트 감소했다. 수면 장애 역시 지난해 20.1%에서 19.7%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우울증 위험군 등이 감소한 것은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 제공이 효과를 본 것으로 소방본부는 분석했다.

소방관 직무 관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도내 소방서별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도 배치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도 소방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만 참혹한 재난 현장 활동으로 유발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지난해와 같은 4.8%로 나와 이와 관련한 대응 프로그램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친일 잔재 청산 단죄문 제막식 8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열린 '광주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단죄문 제막식'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용성 광주시장 등이 뽐혀 나간 친일파들의 공격비를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친환경 양식어업’ 사업비 30억 확보

미꾸라지·새우 양식 선정

해양수산부의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남도가 미꾸라지와 새우 양식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기르는 어업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약 한 달간 모집 기간을 통해 전국 7개 시도, 14개 과제를 신청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사업비 20억원 규모의 친환경 미꾸라지 스마트양식시설 구축, 10억원 규모의 ICT·에어양식바이오오픈랩 새우 양식시설 구축 등 2개 과제가 선정되면서 이들 사업이 첨단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인 양식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친환경 양식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